

### 나주시, 어르신 치매 예방·재활 돕는 텃밭활동 ‘호응’

#### 치매 케어 서비스 접목, ‘미니 케어팜’ 운영 돌입 그룹 매칭 맞춤형 텃밭 활동 지원...3개소 조성

나주시가 치매 어르신의 돌봄 공백 해소와 재활·치료를 위해 운영하는 그룹 텃밭 활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4월부터 생산적인 농업활동과 치매 케어 서비스를 접목시킨 ‘치유해요! 힐링해요! 미니 케어팜’(Care Farm)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미니 케어팜’은 치매 어르신의 자존능력 보존과 신체·정신적 치유에 중점을 두고 70세 이상 정상군 노인, 치매환자, 인지저하 노인을 그룹으로 매칭해 맞춤형 텃밭 활동을 지원한다. 활동 공간인 치유 텃밭 농장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다시면 죽산리, 반남면 대안리 마을과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등 3

개소에 각각 조성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그룹별로 쌈채소류와 계절별 모종 심기, 풀뽑기·비료 작업, 꽃길 가꾸기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수확한 작물은 매달 독거·치매노인 가구에 전달하며 참여자들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나주시치매안심센터는 텃밭 활동 전·후 우울 및 치매 척도 검사를 통해 치매 어르신의 인지능력·기억력 등에 미치는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미니케어팜 서비스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

후와 여가 향유는 물론 우울감 감소, 공동체 형성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치매국가책임제에 근거한 치매의 부정적 인식 개선, 돌봄환경의 다양성, 선진국형 치매관리시스템 추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 60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매센터 및 가족교실, 치매예방교실, 맞춤형사례관리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치매 조기 검진, 재활·치유 프로그램 참여는 치매안심센터



(339-4762~9)로 문의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 무안군 현경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 벽지·장판교체 등 취약계층 주거개선 봉사활동 펼쳐

무안군 현경면은 최근 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에서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구성된 현경면 복지기동대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12명이 활동하는 단계로 복지기동대원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집 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활동으로 도움을 받은 김모씨는 “복지기동대원들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며 “이번 여름은 대원들 덕분에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수정 면장은 “바쁜 농번기 철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사업을 지속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강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 이달부터 연간 최대 220만원→300만원

강진군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지원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되며, 급여부담금(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원금 구분도 사라졌다. 이와함께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 중 국가암검진(5대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및 폐암 환자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

라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지원 사업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을 진단 받거나 같은 기간까지 폐암을 진단 받은 경우는 기존 기준에 따라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하다.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암 치료비 지원 한도가 확대되어 치료가 절실한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며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함평군, 해보면 상모마을서 제4호 치매안심 마을 현판식

함평군이 치매환자가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마을공동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 9일 해보면 상모마을에서 ‘함평군 제4호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아름다운 한옥마을 경관으로 유

명한 상모마을은 마을인구 대비 치매 환자 비율이 높아 제4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 되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군은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을 투입해 치매환자 보호자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치매 환자가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마을 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치매안심 공동체 구성 ▲치매 친화적 안전 환경 조성 ▲맞춤형 치매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함평=김광춘기자

##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